



예양에게 보내는 편지

저자 (Authors)	김기협
출처 (Source)	역사비평 , 2000.11, 355-364 (10 pages) Critical Review of History , 2000.11, 355-364 (10 pages)
발행처 (Publisher)	역사비평사 The Institute For Korean Historical Studies
URL	http://www.dbpia.co.kr/Article/NODE00008597
APA Style	김기협 (2000). 예양에게 보내는 편지. 역사비평, 355-364.
이용정보 (Accessed)	인현고등학교 58.212.193.183 2016/07/20 20:51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자료를 원저작자와의 협의 없이 무단게재 할 경우, 저작권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The copyright of all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original author(s). Nurimedia is not responsible for contents of each work. Nor does it guarantee the contents.

You might take civil and criminal liabilities according to copyright and other relevant laws if you publish the contents without consultation with the original author(s).

예양에게 보내는 편지(寄豫讓書)

김 기 협

역사학자, 동양사

역사는 과거와 현재 사이의 대화(對話)라고 한다. 이 대화의 문법(文法)이 무너지지 않도록 역사학도는 사료를 통해서만 말한다. 엄격한 문법 안에 말을 아끼지만 역사학도는 마음속에 더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다. 옛사람의 높은 이상과 깊은 감회에 접하며 격동된 마음을 극히 절제된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역사학도의 미덕이다.

대중문화의 범람 앞에 과학적 근대 역사학의 패러다임이 흔들리면서 역사학도들은 종래의 미덕을 다시 생각해보게 된다. '사료 대변자'의 위치를 벗어나 '자신의 이야기'를 펼쳐놓는 것은 천박한 세태에 굴복하는 것일까, 시대의 조류에 부응하는 것일까? "위기가 곧 기회"란 말대로 두 측면은 함께 뒤섞여있는 것이 아닐까?

몇 해 전 연구 일선을 떠나 저널리즘에 투신한 김기협 씨가 『사기(史記)』 열전(列傳)을 다시 읽는 작업을 하고 있다. 상아탑을 떠나 세태를 살피는 일에 종사하다보니 옛 자료를 살피는 데도 새로운 감회가 떠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마천(司馬遷)이 전해진 바를 적어 고사(故事)의 윤곽만을 그리되 그 속뜻은 독자의 상상에 맡긴 데 특히 마음이 끌려 흥미로운 인물의 열전에 가상의 편지형식으로 연의(演義)를 붙이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전국(戰國)시대의 선비들도 오늘날 전환기 지식인과 본질적으로 같은 갈등과 질곡을 겪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고 이를 통해 고금(古今)을 서로 비취보는 것이 작업의 목적이다. 사료의 울타리를 벗어나되 사실(史實)의 의미를 버리지 않으려는 자세가 오늘의 역사학도들에게 참고되는 바 있다고 생각하여 그의 글 한 편을 싣는다. —편집자

진(晉)나라는 춘추시대의 거국(巨國)이었으나 기원전 6세기에 접어들면서 정치가 혼란에 빠졌다. 공실(公室 : 제후의 집안)의 위엄이 흐려지면서 힘있는 대부(大夫)들에게 실권이 넘어갔다. 기원전 6세기 중엽까지는 지(智)씨, 위(魏)씨, 한(韓)씨, 조(趙)씨, 범(范)씨, 중항(中行)씨 여섯 대부의 집안이 육경(六卿)의 자리를 대대로 차지하며 영토와 권력을 분점하였으므로 진나라를 가리켜 육진(六晉)이라 부르기에까지 이르렀다.

육경 집안들이 한 세기에 걸쳐 쟁투를 벌인 결과 기원전 5세기 중엽까지는 지씨가 우위를 확보, 육진 통일을 바라보게 되었다. 지씨의 영도자 지백(智伯) 요(瑤)는 범씨와 중항씨를 차례로 멸당시킨 다음 조씨 정벌에 나섰다. 위기에 빠진 조씨의 영도자 조양자(趙襄子)는 지씨의 위세에 눌려있던 위씨와 한씨를 순망치한의 논리로 설득, 비밀리에 연합을 맺어 전세를 역전시키고 지씨를 멸망시켰다. 이 싸움에 이긴 세 집안은 30여 년 후 진나라를 쪼개어 각각 제후국이 되어 전국칠웅(戰國七雄)의 반열에 들게 된다. 이 세 나라를 삼진(三晉)이라고도 한다.

삼진의 분할은 춘추시대에서 전국시대로 넘어가는 중요한 고비로 지목된다. 춘추시대까지 제후는 먼 옛날부터 임금의 혈통을 이어받아 위로는 천자를 받들고 아래로는 대부 이하 신민(臣民)을 거느리며 자기 나라를 다스려왔다. 춘추시대에 약육강식의 풍조가 얼마간 일어나기는 했지만 군신간의 강륜(綱倫)을 기본으로 하는 기존 질서는 엄격히 지켜졌다. 춘추 말기에 이르러 이 질서가 무너지며 무한경쟁의 전국시대로 옮겨가게 되는데, 대부들이 실력을 키워 제후의 자리로 올라서는 삼진의 분할이 그 대표적 사건이다.

지백이 죽은 후 그 식객이었던 예양(豫讓)은 “선비는 알아주는 이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여인은 기쁘게 해주는 이를 위해 모습을 꾸민다”며 지백의 지은(知恩)에 복수로 보답할 것을 맹세한다. 그는 천한 일꾼으로 가장하고 조씨 집

변소에 숨어들어 조양자를 처살할 기회를 노리다가 붙잡혔다. 그러나 조양자는 그를 현인이라 칭송하며 풀어주었다.

그 후 예양은 문둥이 거지로 변장하고 조양자가 지나갈 다리 밑에 숨어있다가 또 붙잡혔다. 조양자는 그 사람됨을 아껴 탄식하면서 자신을 죽이려는 뜻을 버리지 않는 한 다시 풀어줄 수 없다고 예양에게 고한다. 이에 예양은 상징적인 복수나마 이룰 수 있도록 저고리를 벗어달라고 간청하고 조양자가 이를 응락하여 저고리를 내어주자 풀쩍 뛰어 저고리에 세 차례 칼질하며 “지백의 원수를 갚도다!”라고 외치고는 스스로 칼 위에 엎어져 목숨을 끊었다.

예양의 행적은 『사기(史記)』 권 86 자객열전에 실려있다. 지백의 지은에 목숨을 바쳐 보답하려는 예양의 장렬한 뜻이 처절하게 그려져있지만, 조양자에 대한 복수 시도가 왜 끝내 실패로 돌아가고 마는지, 조양자가 베푼 새 지은을 예양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에 대해서는 태사공(太史公)이 설명을 아낀 감이 있다.

문둥이로 변장한 예양의 모습을 그 처도 알아보지 못했으나 한 벼이 알아보고 눈물을 흘리며 예양의 마음을 돌리려 애쓴 일을 태사공은 적어놓았다. 예양의 속마음에 궁금증을 달래지 못한 한 후세사람 필재이 써본 아래 글은 그 벼이 예양을 만나고 며칠 후에 보냈음직한 편지를 상상한 것이다.

큰 재주와 높은 뜻을 가지고도 겉으로 드러나는 성취를 마다하고 도덕적 완성만을 추구하며 세상을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으며, 지금도 있을 것인가. 실패한 자객의 모습을 태사공이 열전에 굳이 그려놓은 것은 역사의 흐름을 수면 위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깊이 잠겨 바닥을 더듬어보는 투철함이다. 후세사람의 글은 뱀그림에 발을 붙인 것과 같기도 하지만, 태사공의 마음을 더 널리 펼치는 길일 수도 있기에 이웃들에게 보인다.

예형(豫兄) 보시게.

그대의 지기(知己)로 노상 자처해온 내가 떨지도 않은 곳에서 이렇게 붓끝에 의지해 마음을 전하려니 답답하기 짝이 없구려.

한달음에 그대에게 달려가 부여잡고 몇 밤이라도 새우며 이야기를 나누고 싶소. 그러나 저번 저자에서 만났을 때 그대가 마음을 달아걸은 것, 아니 마음을 달아걸으려 안간힘 쓰는 것을 본 후 잠을 자도 자는 것 같지 않고 음식을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게 며칠을 지내며 결국 그대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음을 깨달았다네.

떠나보내는 터에 이런 소회를 적어보내는 것부터 부질없는 짓이겠지. 그러나 그대가 읽어주기 바라기에 앞서 나 자신에게라도 하소연하지 않을 수 없는 마음에 이렇게 부질없는 글이나마 적고 있는 걸세.

그대는 조양자를 암살할 기회를 잡기 위해 옷으로 피부를 뭉개고 불타는 숯덩이를 삼켜 성대를 망가뜨렸다지. 그러나 병어리 문둥이 시늉을 한들 이 옥진 땅에서 선비 예양을 알아보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으리.

그대가 저자에서 구절하는 모습을 부인께서 지나치면서 알아보지 못했다는 말을 들었네. 그러나 부인이 진정 알아보지 못한 것이었겠는가. 모습을 감추려는 그대 뜻을 거스른들 달리 마음을 풀어줄 길이 없어 짐짓 알아보지 못한 체한 것임을 누구보다 그대가 모를 리 없을 것일세. 참으로 어진 분이기에 자네를 곁에 붙잡아두려 하기보다 자네 뜻에 맡기고 지나치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는가.

남에게서 모습을 가리려는 변장이라기보다 스스로의 눈에서 감추고 싶은 마음이겠지. 나도 마찬가지로 마음일세. 주군 돌아가신 후 변성명하고 장사치 행세로 숨어 지내지만 내가 누구인지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겠지. 주군을 치고 그 유골을 술잔으로 삼은 조양자를 차마 직접 섬기지는 못하지만, 주변사람들을 통해 이따금 그에게 피를 바치는 나 자신을 스스로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아아, 마음의 눈을 후벼파 내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될 수만 있다면:

예형, 단도직입으로 묻겠네. 그대는 조양자를 진정 죽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는가?

그리고 정말 죽이려 하는 것인가?

저번 만났을 때 피차 말은 안 했지만, 그대가 작년 조씨 집 변소에 숨어들려 할 때 조양자에게 귀뜸해주어 그대가 붙잡히도록 했던 것이 내 소행이었음은 짐작하시겠지. 나는 주군 계실 적에 조양자를 없애라고 내내 현책했지만, 주군이 안 계신 이제 조양자마저 없다면 이 나라가 어떤 꼴에 빠질지 상상할 수 없다네.

나라를 위해 조양자가 없을 수 없는 인물이라는 생각을 그대도 똑같이 가지고 있는 줄 나는 알고 있네. 그러기에 암살 계획을 내게 짐짓 말해준 것 아니었던가. 내가 조양자에게 줄이 닿는 사람인 줄 알면서, 비밀을 지키라는 맹세도 요구하지 않고 그대가 실패를 목적으로 꾸민 일임을 나는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네.

조양자를 죽이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성공했지만 잡혀 죽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실패한 셈이지. 그래서 그대 마음속의 모순은 이어지고 있고, 죽여야 한다는 생각과 죽여서는 안된다는 생각.

자객을 현인으로 칭송하고 풀어줌으로써 조양자는 온 천하에 드넓은 도량을 뿜내었지. 시능만이 아니라 참으로 도량이 넓은 인물일세. 그의 명망을 높여주었다는 데서 우리 둘 다 마음 한쪽의 만족은 얻은 셈이지. 그러나 다른 한쪽으로 우리 마음속의 모순은 더욱 깊어만 가는구려.

저번 만났을 때 내가 권했었지. 정말 조양자를 죽이려 한다면 그 수하에 들어가시라고. 그는 그대를 중용하고 측근에 둘 것이니 병어리 문둥이 노릇하기보다 더 확실한 기회를 쉽게 잡을 수 있을 것 아니냐고.

그대는 일언지하에 거절했지. 복수의 뜻은 충성심에서 나오는 것인데, 복수의 성공만을 위해 진정으로 섬기는 마음 없이 거짓으로 남을 섬긴다면 그 뜻이 근본에서부터 흐려지는 것이라고. 천하후세에 두 마음 품고 임금 섬기는 자들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기 위해 그 어려움을 무릅쓰는 것이라고 그대는 말했지.

자네가 조양자를 진심으로 섬기게 되기를 바라는 데 내 본뜻이 있었음은 굳이 밝혀 말하지 않아도 뻔한 것이었지. 주군 계실 적에 나는 조양자를 적대하도록 늘 현책했고 조양자의 수족 같은 인물들을 몇 해치기도 하지 않았던가. 내가 지금 그를 섬기려 한들 또 그가 내 현책을 요긴하게 여긴다 한들, 그로서는 나를 포용할 명분

이 없고 나로서도 그를 섬길 명분이 없다네.

그러나 그대는 주군께도 조양자를 포용하도록 늘 권했던 인물이고 조양자가 누구보다 곁에 두고 싶어하는 인물일세. 주군에 대한 충성도 소의(小義)는 아니지만, 그대가 더 큰 대의(大義)를 위해 조양자를 받든다면 이 나라의 혼란을 극복하는 데 더 없이 큰 공로를 세울 수 있으리라고 나는 믿어마지 않는다네.

그대가 내 권고를 거절하는 것을 보고 그대가 이미 그대 식으로 조양자를 섬기려 함을 알았네. 그대의 복수라는 것이 상대를 진정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비극을 완성하려는 것임을, 부귀영화를 나눠받으며 일상 속에서 도와드리기보다 한 목숨 쾌히 던져 명예의 관을 그의 머리에 씌워주려는 것임을, 그것이 우리가 늘 함께 모색하던 선비의 길이란 말인가?

선비로 한 세상을 살아왔지만, 선비의 길이 갈수록 어렵게만 느껴진다네. 백년 전 선비 같으면 훨씬 쉬웠을 것 같아. 주군 곁에서든 싸움터에서든 목숨 걸고 충성하는 마음으로 용력(勇力)만 바치면 되던 시절이었지. 한 자루 비수로 제(齊) 환공(桓公)을 겁박하여 수읍(遂邑)의 땅을 되찾은 노(魯)나라 조말(曹沫)의 행적(行迹) 같으면 나 같은 불초(不肖)라도 따라할 수 있을 것 같다네.

세상이 복잡해지면서 제일 까다로워진 것이 선비의 길일세. 전쟁이 잦아지니 진전(陣前)의 용맹보다 막후의 지혜로 이길 길을 찾는 일, 그에 앞서 실속있는 전쟁과 실속없는 전쟁을 가리는 일이 중요하게 되지. 주군의 식읍이 늘어나니 그만큼 많은 백성의 마음을 붙잡아놓는 일, 재정을 키우고 적절한 사업에 투자하는 일이 목숨을 내놓는 충성보다도 주군에게 더 요긴한 도움이 되지. 요컨대 선비의 가슴보다 머리가 더 중요하게 되어가는 셈일세.

나는 어렸을 적부터 이 변화를 내다보고 머리 쓰는 선비로 스스로를 키워왔지. 수십 년래 공실(公室)이 어지러운 것을 보며 이제 제후의 패권이 대부의 패권으로 넘어가는 시대가 온다는 믿음으로 주군께 육진의 통일을 권하면서 그 오른팔 노릇을 해왔어. 제후가 천자를 명목상으로 받들며 실질적 주권을 행사해온 것처럼, 대부도 제후를 명목상으로 받들며 실제로 나라를 다스릴 시대를 바라봤던 걸세.

그런데 범씨와 중항씨를 멸하고 육진의 절반을 차지하게 되면서 마음속에 의문이 떠오르기 시작했다네. 진나라 육경의 반열에 있는 주군이 언제고 다른 상대부(上大夫)들을 모두 물리쳐 육진을 거두게 된다면, 주군의 위치는 기왕의 제후들과 무엇이 다르게 될 것인가. 그분을 섬기는 선비로서 나는 선비의 역할을 어떻게 이어나갈 것인가. 제후의 패권은 존왕양이, 계절존망(繼絕存亡)의 균형을 추구했는데 대부의 패권은 그 확장을 멈출 곳이 어디인가. 이런 의문들이었지.

중항씨를 모시던 그대를 초빙하도록 주군께 간청한 것은 이런 의문들 때문이었다네. 그대는 학식을 쌓고 머리 쓰는 새로운 유형의 선비로 나와 함께 육진의 쌍벽으로 꼽히면서도 공업(功業)의 성취보다 엄정한 처신에 힘을 쏟는다는 점에서 나와는 대조되는 사람이었어. 주군의 패권을 온전히 키우고 지키기 위해 우리 두 사람의 역할이 아울러 필요할 뿐 아니라, 나 자신 선비의 길에 관한 의혹을 푸는데 그대의 일깨움이 절실하다고 느꼈기에 그대의 대접이 나보다 절대 못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군께 간청했던 것일세.

대접 얘기를 하다보니 생각이 나는군. 조씨 집에서 붙잡혔을 때 조양자가 그대에게 따져물었다지? 중항씨를 모시다가 주군께서 그를 멸망시켰는데도 그를 위해 복수할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서 왜 주군의 복수에는 그렇게 집착하느냐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에게 그대 대답을 전해듣고 나는 한참 웃었다네. 이렇게 대답하셨는지? 중항씨는 그대를 범인(凡人)으로 대접했기에 그대도 그를 대함에 범인의 자세를 취했을 뿐이나 주군께서는 그대를 국사(國士)로 대접하셨으니 그대도 국사의 자세로서 그분을 대하는 것이라고.

간단한 논리면서도 참으로 세상을 바꿀 큰뜻이 담긴 말씀이야. 선비가 군주에게 바치는 충성은 군주의 신뢰에 근거를 둘 수밖에 없지. 그대 자신 주군을 바꿔 모신 일이 있지만, 지금의 난세는 옛날처럼 군신관계가 몇 대씩 이어지는 세상이 아닐세. 선비가 옮겨다니며 주군을 골라 섬기는 일이 늘어나고 있지.

그렇다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듯 변화가 무상해서는 이 세상에 안정과 평화가 있을 수 있겠는가. 군신관계의 양면성을 밝혀 세우는 것이 시대변화에 순응하면서도

다음 단계의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길일 것이야.

그대의 대답을 전해 듣고 내가 웃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그대가 과연 주군의 신뢰가 그토록 절대적인 것이었다고 생각하시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였다네. 주군이 그대를 우대한 것이 내가 간청했기 때문이었음은 우리 모두 잘 아는 일 아닌가. 주군은 패권 강화를 위해 부국강병책을 관한 내 제안을 늘 받아들이신 반면, 그대가 현책한 공존정책과 인정(仁政)은 귀담아듣지 않으셨지. 바로 그 때문에 급속한 패망의 길에 접어드셨던 것이고.

그토록 신임을 받으며 오히려 주군을 패망의 길로 이끈 죄를 어떻게 씻을 수 있을지, 나는 길을 알지 못한다네. 참으로 나는 씻을 수 없는 죄인일세. 주군이 나보다 그대를 더 신뢰하셨다면 이 참담한 지경을 면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에 주군을 현혹시켰던 헛바닥을 내 손으로 뽑아버리고 싶다네.

그런데 나는 구차한 삶을 이어가며 주군을 쓰러뜨린 조양자에게 피를 바치고 있지. 전과 같은 부귀영화를 누리지는 않지만 그대와 비할 수 없는 흐의흐식을 하며 편안히 지내는 것은 주변사람들의 도움을 조양자가 묵인해주기 때문일세. 아니, 묵인 정도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조양자가 시켜서 나를 도와주는 것이 분명하다네.

주군께서 그대를 나라의 큰 선비로 대접하신 거라면 조양자는 그대를 천하의 큰 선비로 모시려 할 걸세. 그는 본성적으로 균형과 평화를 원하는 사람이야. 20년 전 조씨의 세력은 주군과 대등했으나 주군께서 세력을 키워 범씨와 중항씨를 합병하는 동안 조양자는 덕망만을 키웠지. 부득이한 상황에 몰리자 한씨, 위씨와 연합해 주군을 쳤지만, 그 후에도 그들을 억누르려 하지 않고 공존책을 펴고 있지 않은가. 그대와 똑같은 천성(天性)과 생각을 가진 사람이야.

조양자의 휘하에도 패도(霸道)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 나는 한 시기 패도를 이끌어보고 그 문제점을 통렬하게 맞본 사람으로서 지금 나라를 이끌고 있는 조양자의 막하에서 설부른 패도론이 득세하지 않도록 견제해주는 역할에 일말의 보람을 느끼며 산다네. 주군에게 지은 죄는 목숨을 열 번 바쳐도 씻을 길이 없지만, 내가 주도한 전쟁으로 고통을 겪어온 온나라 생명(生靈)들에게는 미안한 마음을 조금이라

도 줄일 수 있기 바라는 마음일세.

그대가 조양자의 초청을 받아들인다면 개인으로서 큰 대접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훌륭한 정치를 향한 그대의 뜻이 조양자를 통해 잘 펼쳐질 수 있을 걸세. 나처럼 작은 그릇은 한번 모신 주군의 그늘을 벗어날 수 없지만, 그대처럼 큰 그릇은 더 큰 주군을 찾아 더 큰 쓰임에 나서야 한다고 나는 생각하네. 그런데 나는 오히려 조양자에게 얇은 피나마 바치며 연명하고 있고, 그대는 크나큰 모순을 한 차례 죽음으로 정리할 생각만 하고 계시다니!

주군을 함께 모시는 동안에도 그대로부터 늘 일깨움을 찾았지만, 그분 돌아가신 후 더 큰 것을 그대로부터 배워왔다네. 아직 선비의 길에 대한 내 깨우침이 모자라기는 해도 그대 가려는 길을 막을 수 없다는 정도는 이제 알겠네.

선비란 중간적 존재 아니겠는가. 정치를 행하는 군주는 크나큰 의리만을 살필 뿐, 세세한 인정에 얽매이지 말아야 하지. 한편 백성은 인정에 따라 움직일 뿐 의리를 너무 따져서는 안되는 것이고 “예(禮)는 서인(庶人)에게까지 미치지 않고 형(刑)은 대부(大夫)에게까지 오르지 않는다”고 공(孔)씨가 말하지 않았던가. 다스리는 자들이 인정을 벗어나야 고른 정치가 이루어지고 다스림받는 자들이 의리를 넘보지 말아야 정치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치를 이처럼 명쾌하게 설파한 공씨는 참으로 정치의 본질을 꿰뚫어본 사람일세.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명쾌하지가 못하지. 서인의 마음을 가진 대부와 대부의 마음을 가진 서인들이 마구 뒤섞여있으니, 예(禮)의 세계와 형(刑)의 세계가 걸핏하면 서로 부딪치는 것이 현실일세. 이 틈바구니에서 인정을 외면하지 않으면서 의리에도 충실하여 세상이 썩지도 무너지지도 않고 굴러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선비 아니겠는가?

예형이나 나처럼 학문을 닦은 선비들은 인정보다 의리에 치우치기 쉬운 것이 어쩔 수 없는 일 같네. 그런데 주군을 잃은 이제 그대는 조양자를 따라 의리를 널리 펼 기회를 맞았음에도 이를 마다하고 주군과의 인정에 한 목숨 바치려 하고 있지. 그것이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가는 길임을 나는 분명히 안다네. 군신간의 관계도 공리(功利)로 맺어지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으니.

그럼에도 내가 그대의 길을 막으려 나서지 못하는 것은 세상의 지금 흐름이 올바른 것이라고 믿지 못하기 때문일세. 당장의 흐름을 거스르더라도 인성(人性)의 큰 모서리 하나를 굳건히 지켜 후세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남기는 것이 선비로서 한세상을 산 보람이라고 그대가 믿는 이상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는가. 내가 그대와 같은 길을 걷지 못하는 까닭은 세상의 지금 흐름이 꼭 내칠 것이라고도 또한 믿지 못하여 이 흐름을 조금이라도 더 고르게 하는 데 미미한 정성이나마 바치고자 하는 뜻에 있을 뿐이라네.

이제 그대에게 마음의 작별을 보내겠네. 나는 사람을 통해 조양자에게 이번에 그대가 또 붙잡히면 복수에 목숨을 바치려는 그대 뜻을 이뤄주라고 권하려 하네.

죄 많은 나를 두고 죄 없는 그대가 주군의 업보에 목숨을 바치시다니! 깨끗한 짐승이라야 제사상에 올라가듯, 깨끗한 사람이라야 세상을 위한 희생도 될 수 있는 것인가. 그대는 갈 길을 가소서. 그대가 큰 가르침을 세상에 던져놓고 떠나간 뒤, 나는 모순과 고통의 삶을 얼마간 더 이어가며 기왕에 일으켜놓은 흙먼지를 조금이라도 닦아내고 있으려네.

살아남을 자가 염치없이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그대의 피로 조양자의 옷깃을 물들이지 말아주게나. 지금의 세상을 이끌어갈 그의 역할이 소중한기도 하거니와, 그대를 떠나보내는 그의 마음도 아마 내 마음 못지않게 쓰라릴 걸세. 그런 정도 인정은 설마 살피주시겠지?

살피가시게. 먼저 주군을 뵈거든 머지않아 나도 뒤를 따르겠다고 전해주시게.